

지역 소식

제22대 유상범 국회의원 당선



압도적 지지로 성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군민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 섬기며, 늘 경청하고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질책과 쓴소리도 깊이 새기며, 훗날에는 더욱 많은 분의 마음을 얻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와 중단없는 발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선거 과정에 말씀드렸던 공약을 꼼꼼히 챙기면서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의 전성시대를 열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 당선인 유 상 범 올림

한승환 홍천군자원봉사센터장 취임 인터뷰

1.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약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한승환 센터장〉

1979년 5월 처음 지방 행정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홍천군에서 40년간 본청 및 6개 읍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2015년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내면장, 종합민원과장, 자치행정과장을 끝으로 2019년 6월 말 정년퇴직하였습니다.

2. 앞으로 센터를 이끌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원봉사의 현장에도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 단순한 노력 봉사를 요구하던 시대에서 지식과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문 봉사의 시대로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향상과 사회적 변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것이고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당위성에서 그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센터에는 160개의 봉사 단체와 18천여 명의 개인 봉사자분들이 등록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인구가 많고 광활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보면 등록된 수가 조금은 부족하고 특히 봉사자의 봉사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센터에서는 이러한 점을 다시 점검하여 자원봉사단체와 개인 자원봉사자의 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질 높은 자원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층 더 자원봉사센터로서 역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 및 협력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봉사 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최대한 자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들이 자주 소통하고 대화를 할 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요?

우리 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이 주민들에게 또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군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상호 소통하면서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허브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구축과 함께 협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협조한다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행복한 홍천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안부를 물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는 미래의 행복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등불을 밝히기 위해 외로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면 누구보다도 바로 나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행복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때 자원봉사는 더 소중한 가치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돌봄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적 재난구호 등의 공익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류애를 실천하는 범국가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인 것 같습니다.

CONTENTS



01 - 지역 소식

02 - 복지관 소식

03 - 지역 탐방

04 - 맛집 탐방

05 - 인물 탐방, 복지 제도

06 - 노년기 삶

07 - 환경 캠페인

08 - 인생 칼럼



복지관 소식

정리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홍천군북방노인복지관(북방)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정리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 취득과정 '정리를 부탁해' 프로

그램을 진행한다.

정리수납 강사를 섭외해 정리수납의 기초 이론부터 침구, 옷장, 서랍, 냉장고 등 효율적으



로 정리 및 수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정리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리수납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필수 교육



2024년 4월 4일(목) 홍천군북방노인복지관에 서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기억두드림(치매·인지 예방 교육) 바로 봄(노인 인식 개선), 팜&

쿱(텃밭 가꾸기 및 요리 나눔) 총 3분야로 삶의 지혜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발대식 및 필수 교육은 사업설명회, 선



배시민 선서, 교육 순으로 진행되어 봉사자 개인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이 소명과 목표를 갖고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사회를 밝히기 위한 환한 등불이 될 수 있길 바란다.

김동식 기자
(dong-sik@hanmail.net)

지역 탐방

홍천에 싹트는 도예 문화



도예는 도자기 공예를 줄여 이르는 말이다. 점성을 가진 가소성이 있는 진흙으로 작품을 만들고 불을 사용해 구워내기에 흙과 불의 예술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도자기 하면 이천이나 여주가 자연스레 머릿속에 떠오른다. 전국의 많은 도예가들이 모여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고 애호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유명해진 것이다. 물론 부산 도자기 축제, 문경 찻사발 축제, 강진 청자 축제, 일산 옹기 축제 등 다양하고 많은 도자기 축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천 도자기 축제가 우리나라에서의 대표적인 축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일본의 고령자 재활학을 전공한 초지시타 교수에 의하면 도예는 노인들을 위한 치료요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신체와 정신 양면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흙을 반죽함으로써 근력을 단련하거나 관절의 움직임을 높이는 신체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신적으로는 자기표현을 통해 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인지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리의 고장 홍천의 서석면 풍암2리 아람마을에도 '아람 도예'라는 도예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공방이 있어 취재하고자 방문하였다.

아람 도예의 공은남 선생님은 서석면 출신으로 서석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적으로 도예 공부를 시작하여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후 20년간 도예가의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풍암리 김진수 이장님이 주민들이 좋아하는 여가 활동

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 해오다 아람마을 출신의 도예가가 있다는 정보를 얻고 공은남 선생님을 찾게 되어 2020년부터 고향에서 공방 운영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도예 수업은 3개월을 한 코스의 기준으로 하여 월 4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배우고 있는 수강생은 20여 명이며, 매년 100여 명이 체험활동을 하러 방문한다고 한다.

도예의 과정은 핀칭, 코일링, 판 작업, 물레 작업, 캐스팅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물(도자기)의 형태가 나오면 초벌 소성이라고 하는 1차 작업을 하고, 2차 작업인 재벌 소성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물레를 돌리며 하나의 물건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1~2차에 걸쳐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기물이 갈라지거나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건조는 되도록 천천히 진행 시켜야 하며 보관 방법, 굽기 등 세밀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작품이 망가져 다시 만들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람 도예에 방문했을 때 마침 공방에는 도예 공부를 하러 온 수강생들이 있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온 수강생의 작품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모습에서 도예의 멋과 매력을 느껴볼 수 있었다. 또 다른 한 수강생은 갈라진 작품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보강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공은남 선생님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귀농·귀촌한 낯선 사람들이 모여 함께 다과도 나누고 도예를 배우면서 지내는 훈훈한 모습은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어 가는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다.

수업받는 수강생들이 아람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오고 있으며 많은 여행객이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도예 인구가 점점 늘어감에 따라 앞으로 아람마을, 그리고 홍천군에 싹트는 도예 문화가 더 큰 결실을 보리라는 기대를 한다.

심연흠 기자
(simmusic@naver.com)

우리 동네 맛집 기행 (紀行) : '통나무 식당'의 선짓국



선짓국은 동물의 피, 주로 소나 돼지 피가 재료라는 것 때문에 호불호가 엇갈립니다. 도축된 소의 피를 소금물에 받아내면 피가 희석되어 엉기게 되는데 여기에 물을 추가하여 농도를 조절하고 가만히 두면 젤리 같은 상태의 선지를 얻습니다. 이를 재료로 하여 국을 요리한 것이 바로 선짓국입니다. 오늘은 선짓국을 나름의 레시피로 끓여내는 '통나무 식당'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본 식당이 문을 연 것이 1984년이니 올해 40년 전통입니다. 두 내외분이 식당을 열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두껍던 통나무 탁자는 이제 세월의 무게만큼 깎여 납작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음식점의 유명세로 이미 많은 손님이 '후루룩'하고 국을 넘기는 맛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특이한 점은 식당 이름대로 테이블이 모두 통나무입니다. 고풍스럽고 정겹습니다.

선짓국에는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신선한 선지가 주재료고 소의 위에 해당하는 양, 양지, 콩나물, 우거지입니다. 잡뼈를 넣고 푹



끓인 국물에 이 재료를 넣고 손님상에 차려줍니다. 예전에는 흥천에서도 선지를 구했지만, 요즘은 구하기 어려워 멀리 평창에서 선지를 공수해옵니다. 찾는 사람이 많아 1주일분을 가져오면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문한 선짓국이 뚝배기에 담겨 나왔습니다. 우선 양념장을 국에 넣어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국물을 한 숟갈 씹습니다. 맛이 고소하고 진합니다. 이번엔 까만 두부 같은 선지를 한 입 베어 물어봅니다. 첫맛은 삼삼

하나 끝 맛은 씹을수록 고소합니다. 바로 이 맛이 선짓국만의 매력인 거 같습니다. 양도 한 점 입에 넣고 씹으니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별미입니다. 우거지도 한 젓갈 입에 넣습니다. 육수에 오래 삶아진 우거지는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적당하며 배추의 고소함과 단맛이 납니다. 이제 밥을 말아 본격적으로 국밥을 먹습니다. 밥알과 선지, 양, 우거지가 혼합된 한 숟갈의 국밥은 여러 재료가 섞여 뭐라 설명하기 힘든 오묘한 맛을 냅니다. 반찬은 깍두기 김치, 무장아찌인데 재료로 모두 국내산을 씁니다. 먹다 보니 어느새 한 그릇이 다 비워졌습니다. 국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벽에 걸린 선지의 효능을 보니 참으로 많습니다. 다이어트 효과, 빈혈 예방, 숙취 해소, 중풍 예방 그리고 심혈관질환과 관절염에 좋은 비타민 B3가 풍부하다고 적혀있습니다. 뚝배기 한 그릇에 주인의 정성과 배려를 먹은 느낌입니다.

김민호 기자
(minho215@hanmail.net)

인물 탐방

홍천군 경로당의 분회장을 찾아서 4탄(내촌면 박영섭 분회장)

2024년 4월 5일 내촌면 14개의 경로당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박영섭 분회장을 만나 뵙기 위해 내촌면 도관1리 경로당을 방문하였다. 함께 모여 계신 회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며 취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내촌면 분회장과 도관1리 경로당



〈박영섭 분회장〉

박영섭 분회장은 고향이 경기도 화성이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01년에 산 좋고 물 좋은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에 자그마한 땅을 마련하여 터를 잡게 되었다. 그러다 주민들의 추천에 힘입어 분회 사무장을 거쳐 2021년부터 5대 분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한다.

내촌면 도관1리 경로당(회장 허길구)은 남성 회원 26명, 여성 회원 34명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강사진이 찾아와 마술, 한글,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한다. 그중 한글 수업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유년 시절에 한글을 배울 수 없었기에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 배울 수 있어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했다.

도관1리 경로당은 무엇보다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하여 모범이 되고 있다. 일자리 사업에 부지런히 참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걷기, 체조 등 운동하시는 분이 많다고 한다. 물론 처음에는 일자리 사업과 프로그램,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체력에 부처 힘들어하였으나 혼자

서 하는 것이 아닌 다 함께하는 것이기에 즐기면서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도관1리 최고 고령자 어르신 두 분의 건강 비결은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 휴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악한 마음이 아닌 배려하고 베푸는 마음이 올바른 정신으로 이끌기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관1리 허길구 회장은 우리나라 노인 학대에 대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학대는 단지 신체적 폭력 행위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에 정신적 폭력, 경제적 착취 및 가혹행위, 방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노인 학대를 주제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하였다.

박영섭 분회장은 내촌면 14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항상 준비된 쉼터를 만들겠다고 하며 끝을 맺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복지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와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카드를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직, 퇴직 후 다시 취업을 원할 때 신청할 수 있어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취업 분야도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므로 누구나 배울 수 있으며, 취업할 의지와 각오만 있다면 취업의 문도 넓게 열려 있다.

훈련비 지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게 되는 과정은 본인이 교육받을 분야를 정하고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카드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배우는 분야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게 지원된다. 금액의 85~100% 지원 가능하며 훈련 기간 중 80% 이상 출석하여 수강해야 한다. 이때 월 지원금도 따로 지급된다.

요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IT, AI 분야 등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취업 진로 지원을 통해 상담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한다.

고려요양보호사 교육원 홍천점

홍천의 유일한 내일배움카드 교육 기관은 홍천읍에 있는 고려요양보호사 교육원이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은 이론 및 실기 30일, 현장실습 10일로 총 40일의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수강료, 교재비는 전액 지원이 된다. 단, 시험 합격 후 6개월간 직업을 유지하여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또한, 가족 요양 시에도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치매 환자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돌보며 많은 고통을 감내하는 가족에게 작은 위안이 될 수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장

기요양 1~5등급 및 인지 지원 등급을 선정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으로 가정 내에서 요양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가정을 위해 2007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가족상담 지원제도

가족상담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가족들의 돌봄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2019년에 시작하여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센터를 전국 227개로 확대해 추진하므로 많은 가족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돌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어려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자원도 연계한다. ‘나 혼자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족 뒤에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과 바람이 있다.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새로운 것에 도전, 새로운 삶이 열린다

익숙한 것이 편안하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이 편하다. 노인일수록 더욱 그렇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불편하고 꺼려진다. 그래서 안 해본 것은 아예 도전조차 포기한다.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살짝 올라 오다가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으로 시작조차 못 하게 된다.

가끔 매스컴에 막무가내 노인들에 관한 기사가 올라오지만, 대부분 노인은 신중하다.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뭐 무서울 게 있겠냐 하지만 실제 안하무인인 경우는 드물다. 때로는 잘 안 들려서, 때로는 잘 안 보여서, 때로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돼먹은 것은 아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배려받기도 하지만, 종종 오해와 편견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한두 건의 일로 ‘노인들은 다 그래.’라는 선입견을 갖거나, 심지어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도 듣는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억울하다.

노인은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노인이 되면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신체적 기능이 떨어지고, 인지능력도 낮아진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 따른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노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얼마 전에 총선이 치러졌다. 선거할 때만 되면 노인의 정치적 의식과 판단 능력에 회의적인 발언들이 튀어나온다. 이럴 때마다 노인 폄하 발언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는 노인 인식 부족으로 인한 소치다. 몇 가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체적 기능이 낮아졌다고 해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도 떨어졌다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때론 고집스러워 보일 경우도 있지만, 확고한 소신이 있기에 뜻을 견지하기도 하는 것이다. 노인을 평가하는 잣대가 노인이 아닌 다른 층에서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노인을 노인의 기준에서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노인은 과거에만 사는가?

나이가 들면 지나간 이야기를 많이 한다. 기억이 남아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이기도 하다. 은퇴해서 한

가해지면 보통 동창들을 많이 찾게 된다. 만나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학교 때 이야기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두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하고 박장대소를 한다. 다음에 만나도 또 그 이야기이다. 종종 엇갈린 기억들로 인하여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한다. 착각이 확신으로 변하고, 고집이 되기도 한다. 심하면 싸움이 나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으로 등을 돌리기도 한다.

과거에 묶여 있으니 노인은 고리타분하다고 한다. 내가 살아온 바이고 내가 기억하는 바이니,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이야기 또 하고 약간 바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다. 하지만 어찌랴. 새로운 것이 없고 새로워지기도 겁나고 불편하니 과거 일들을 되풀이 하게 된다.

노인에게 미래는 있는가?

Y 씨(71세, 경기 안양)는 작년까지만 해도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로 일을 했었다. 그런데 특별히 정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70세가 됐다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6년이나 일해 온 직장이고 아직 일하기에 충분한 힘이 남아있는데 그만두라는 말을 들으니 맥이 빠지고 앞이 캄캄했다. 뗏목이 없어서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소일거리도 되고 용돈 벌이도 돼서 정년퇴직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가끔 입주민의 갈잡은 소리로 마음이 언짢기도 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일터였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정지된 상태가 된 것이다.

Y 씨는 이로 인해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다. 살아갈 낙도 없고 어찌 살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러다 약이 떨어져 멈춰버린 벽시계 건전지를 사러 상가 마트에 갔다가 우연히 악기점을 지나치게 되었다. 아마 전에도 수없이 지나쳤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그 악기점에 전시된 통기타가 더욱 눈에 들어왔다. 묘한 전율이 느껴졌다. ‘저거! 학창시절부터 꼭 치고 싶었던 통기타.’ 삶에 바쁘다 보니 결국 손도 못 댔던 통기타, 그래서 늘 아쉬움으로 남았던 통기타가 팔을 뻗으면 손에 잡힐 듯 그곳에 있었다.

통기타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통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다. 기타 줄 한 번 튕겨보지 않았는데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수준에 맞춰 잘 가르쳐 주는 강사 덕



〈취미 하나가 때로는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분에 차츰 익숙해졌고, 함께 배우는 또래들과도 제법 격조 높은 교류가 이루어졌다. 자신감이 붙어가기 시작했고 친구와 가족 앞에서 멋지게 연주해 보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그저 통기타일 뿐이지만 Y 씨는 이로 인해 소박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이 생겼다.

과거가 미래의 토대가 되는 삶을 살시다.

소소한 것이 큰 기쁨과 보람이 되기도 한다. 노인은 감각이 무디다고 했던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노인에게는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다.

‘이까짓 것’이라고 버려지는 것이 노인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작은 것이지만 노인에게는 삶의 미래이자 의미가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가 자신을 폄하하지 말자. 그리고 과거가 그냥 지나쳐 온 것이 아니라 미래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가자. 통기타를 통해서든, 글짓기를 통해서든, 자원봉사를 통해서든 간에 말이다.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환경 캠페인

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환경 오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가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직면했다. 편리함이라는 매력적인 장점이 있는 플라스틱은 우리 삶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2021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 대비 약 260배나 증가했다. 비대하게 생산된 플라스틱은 그 수만큼 버려지고 있으며 썩어 없어지지도 않아 잘게 부서져 공기 중에서 우리 곁을 떠돌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은 생산량의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졌으며 제작할 때와 폐기할 때 모두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력적이고 획기적인 물질이었던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루빨리 떨어내야 하는 물질이 되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46.5%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발표한 2021년 12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에서 버려지는 배달 플라스틱 용기는 대략 12,255,000개 정도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생활방식으로 야기된 배달 음식과 택배 이용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도 증가했다. 이는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그릇 용기나 바구니 등으로도 대체할 수 있어 신경 쓴다면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 그렇기에 플라스틱 오염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 중 하나이다.

최근엔 배달 앱을 이용하는 업종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이 아닌 배달 쓰레기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부대찌개를 담는 비닐, 치킨을 감싸는 포일, 햄버거를 덮는 종이 포장지 등이 있다. 그렇다면 배달 음식을 먹은 뒤 수북이 쌓인 배달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할까? 음식 종류나 소재에 따라 헛갈릴 때가 많다. 잘못된 분리배출은 오히려 재활용을 방해하는 만큼 정확한 분리배출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전 지구적 문제가 된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이 제각각 나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엔은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의 협상에 참석하고 있는 만큼 플라스틱 생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분리수거는 단순히 쓰레기를 분류하는 행위를 넘어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한다. 특히 플라스틱 같은 비 분해성 재료는 환경에 장기간 남아 생태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항을 생활 속에서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모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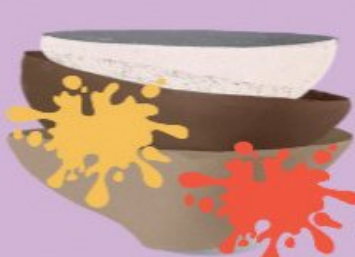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기름이 묻은 종이



미세척 용기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는 통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고무장갑, 슬리퍼



과일망, 과일포장재



깨진 유리류



문구류



보온·보냉팩



노끈



CD



도자기류

인생 칼럼



석도익

소설가

자기 뿌리를 땅에 심어 지탱하며 살아가는 식물들은 자리를 옮길 수 없다. 그래서 나무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지를 뻗지 않는다. 바람에 맞서면 부러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은 자기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옮겨가며 바람이 부는 쪽을 피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아부한다거나 쫓대 없이 살아간다고 동종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사람 또한 약삭빠르게 내게 좋다고 굳이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빈축을 사가며 살다가는 언젠간 원한을 사 크게 다치거나 다정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리고 떠나갈 것이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

다.'라고 하여 평지에 튀어나온 돌은 발길에 걸려차이게 되어 있다. 어떤 이는 돌부리를 차서 다친 발을 동동 구르며 길바닥에 박힌 돌부리에 대고 '하필이면 왜 거기 있었느냐?'라고 욕을 한다. 그래야 자기합리화가 되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 돌부리 같은 사람도 꼭 있기 마련이고, 그 돌부리 같은 사람을 차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길을

조약돌처럼 서로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라는 말이 생겼나 보다. '함께'라는 말은 참 다정하고 소중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하면 행복해지니, 인생을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울림이다.

서로 양보하며 한 발자국 다가서는 친근함으로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

해야 하는데, 사람들의 유형은 다양하기 마련이고 삶의 방식 또한 천차만별이라 어떠한 사람이 좋고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모두 구색을 갖추고 있어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들이다.

한의학에서도 주요한 한약을 처방할 때 독초도 함께 넣어야 약의 효능을 발휘한다고 한다. 우리가 섭취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독초도 약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볼 때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이익만을 취하려는 사람은 법으로 제재를 가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법을 더 잘 이용해서 자기 방패로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상 나쁘고 못된 사람도 그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찌겠는가? 착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돌아가 참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지. 그들을 미워하다 보면 내 건강이 나빠지고 병을 얻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니 누가 뭐래도 미워하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눈으로 잘 살피면서 가다 돌부리가 있으면 돌아서 가든가, 튀어나온 돌부리를 깨내고 가면 좋으련만,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허겁지겁 달리다 뒷사람도 다칠 거란 염려보다는 늦어진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해 가기에 바쁘다.

인생을 모난 돌처럼 살면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위험하니 당연히 주변에 친구가 없다. 그러니

을까? 그러나 함께하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어울림을 이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특히 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누구나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고, 각자의 의사결정으로 함께 어울려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사회나 단체 또는 모임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함께

인생 칼럼



강정식

시인

봄 향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던 4월이 어느덧 지나갔다. 그런데도 화사한 봄날은 계속되고 있다. 울타리 밑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고 산에는 진달래와 벚꽃들이 흐트러지게 되었다. 온천지가 꽃으로 물들었고 이에 질세라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다닌다. 또한, 4월은 농부들이 일들이 늘어나 분주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못자리를 정해야 하고 점차 옥수수과 콩과 같은 씨앗들을 뿌려야 한다.

그래야 여름에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부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하다.

지난 10일에는 제22회 국회의원

했다. 우리나라의 4월은 참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일들이 많이 일어난 달이다. 54년 전 3.15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가 밝혀져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4.19 혁명을 일으켰고, 8년 전에는 세월호의 침몰로 인해 꽃다운 청춘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4월을 뒤돌아보며

을 뽑는 선거가 끝났다. 몇 달 동안 지속하던 어수선했던 선거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여야를 떠나서 누구를 지지했든 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즐겨야 한다.

T.S 엘리엇이라는 영국의 한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길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라고 한다. 오늘의 중심으로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어찌할 수도 없고, 내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알 수 없기에 오늘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덧붙여 하는 말은 '젊어서는 희망 속에 살고, 나이 들어서

는 추억에 산다.'라고 한다. 그러려면 젊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놔야 늙어서 그 추억을 회상하며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것이다.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삼박자가 고루 잘 맞아야 행복한 현실을 영위할 수 있다.

사실 요즘 건강한 노인들치고 밥 굶는 사람은 드물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마련돼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몸만 건강하다면 먹고, 입고, 자는 데는 그 지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독거노인의 경우 외롭고 쓸쓸하여 고독한 것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사람의 4월이 잔인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자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될 수도 있고 기념일일 수도 있다. 행복한 날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